



禮記

|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 조민환 교수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2강. '禮'자의 문자적 해석과 적용 범위





예자에 대한



문자적 해석 및 예의 적용 범위

사람은 **혈연관계**를 유대로 하는

이족과 **가정**이 있다



예의 기원은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나타난다



허신(許愼)
(후한 중기의 학자)

자는 숙중(叔重)이며, 예주 여남군 소릉현(召陵縣, 현재의 하남성 뤼허 시) 사람이다. 중국 최고(最古)의 자전 《설문해자》의 저자.



설문해자 說文解字

후한(後漢)의 허신(許慎)이 편찬.

그 당시 통용된 모든 한자 9,353자를 540부(部)로 분류하고,

친자(親字)에는 소전(小篆)의 자체(字體)를 싣고,

그 각 자(字)에 자의(字義)와 자형(字形)을 설해(說解 ; 訓詁解釋)함.

소전과 자체가 다른 흑체자(或體字 ; 古文·籀文)는 중문(重文)으로서 1,163자를 수록.



『**일문해자**』

에는

시행한다

리(履)

종시종풍 (從示從豊)

(땅 귀신) '시'자를 따르고, (풍년들) '풍'자를 따른다.

하늘에 있는 귀신[혹은 조상신]을 상징



빛이 내려오는 것을 의미

제물을 신령 [혹은 조상신]에게 바치는 것을 상징

從示從豊



존숭 (尊崇): 높이 받들어서 숭배함

보우 (保佑): 보호하고 도와줌



극기복례

克 己 復 禮

욕망(慾望)이나 사(詐)된 마음 등(等)을 자기자신(自己自身)의 의지력(意志力)으로 억제(抑制)하고 예의(禮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함.

『論語(논어)』 『顏淵(안연)』

오례五禮

- ◆ 길례: 제사와 관련된 의례.
- ◆ 흉례: 민간의 상장에 관한 상례(喪禮)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왕실의 상장에 관한 의절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
- ◆ 빈례: 손님을 접대하는 예. 국가에서 행하여진 빈례는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의식.
- ◆ 군례: 군사(軍事)에 관한 예의. 군권의 최고 책임이 임금에게 있음을 의식을 통하여 나타내는 예제.
- ◆ 가례: 임금의 성혼(成婚) · 즉위나, 왕세자 · 왕세손의 성혼 · 책봉 같은 때의 의식.



정도전(鄭道傳) :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에 역사의 중심에서 새 왕조를 설계한 인물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 정도전 · 하륜 등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사찬(私撰) 법전

신숙주(申叔舟) :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자는 범옹(泛翁)이고, 호는 희현당(希賢堂)·보한재(保閑齋)

『**國朝五禮儀(국조오례의)**』 : 조선 전기 신숙주·정척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



**천리지절문(天理之節文),
인사지의칙(人事之儀則)**

“ 천지의 절문이요, 인사의 의칙 ”



문체남의 의미



節 **마디 절**
의 의미

文 **글월 문**
의 의미



天理之節文(천리지절문),
人事之儀則(인사지의칙)의 핵심마디



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체적 일천 을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난다

道德仁義，非禮不成，教訓正俗，非禮不備。

도 덕 인 의 비 례 불 성 교 훈 정 속 비 례 불 비

分爭班訟，非禮不決。君臣上下父子兄弟，非禮不定

분 쟁 반 송 비 례 불 결 군 신 상 하 부 자 형 제 비 례 불 정

官學事師，非禮不親。班朝治軍，涖官行法，非禮威嚴不行

환 학 사 사 비 례 불 친 반 조 치 군 리 관 행 법 비 례 위 엄 불 행

禱祠祭祀，供給鬼神，非禮不誠不莊。

도 사 제 사 공 급 귀 신 비 례 불 성 불 장

是以君子恭敬撙節，退讓以明禮。

시 이 군 자 공 경 준 절 퇴 양 이 명 례

도덕과 인의도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화를 세워 백성을 가르쳐서 풍속을 바로잡는 일도 예가 아니면 완비되지 않는다.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을 판결하는 일도 예가 아니면 결정될 수가 없다.

임금과 신하, 웃사람과 아랫사람,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의 분수도 예가 아니면 정해질 수가 없다.

벼슬하고 배우는 데 있어 스승을 섬기는 일도 예가 아니면 친애할 수 없다. 조정에 반열하며 군대를 다스리며, 벼슬에 임하고

법을 시행하는 일도 예가 아니면 위엄이 서지 않는다. 기도하고 제사하며 귀신에게 공급하는 일도 예가 아니면 정성스럽지 않고 단정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공경하고 절도를 알맞게 하며 사양하고, 겸손한 행동을 통해 예를 밝히는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상(曲禮上)」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족 용 중 수 용 공 목 용 단 구 용 지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성 용 정 두 용 직 기 용 숙 입 용 덕 색 용 장

걸음걸이는 무겁게 하라. 손가짐을 공손히 하라. 눈의 모양은 단정히 하라. 단정하고, 입은 가만히 다물라.
말소리는 조용히 하라. 머리 모양은 똑바로 두라. 숨쉬기를 정숙히 하라. 서 있는 모습은 덕스럽게 하라. 안색은 장중하게 하라.

『禮記(예기)』「옥조(玉藻)」





군자의

외적 행동거지 및 **용모를 규정**



귀족 혹은 군자 되기엔
중요한 의미



수외(修外)

： ‘밖’을 수양하는 것

수내(修內)

： ‘안’을 수양하는 것

言語之美，穆穆皇皇，朝廷之美，濟濟翔翔。
언 어 지 미 목 목 황 황 조 정 지 미 제 제 상 상

祭祀之美，齊齊皇皇，車馬之美，匪匪翼翼。
제 사 지 미 제 제 황 황 차 마 지 미 비 비 익 익

鸞和之美，肅肅雍雍。
난 화 지 미 속 속 응 응

언어의 아름다움은 뜻이 심원하고 기세가 높은 데 있고, 조정의 아름다움은 행동거지가 일정하고 법도에 합치되는 데 있고, 제사의 아름다움은 삼가고 정성스러우며 두려워하고 조심하는데 있고, 거마의 아름다움은 움직임이 신속하고 멈추지 않는데 있고, 수레가 달릴 때 난새 모양의 방울 [난령(鸞鈴)]의 화합하는 소리의 아름다움은 맑고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

『禮記(예기)』 「少儀(소의)」

禮也者理也。樂也者節也。

예 야 자 리 야 락 야 자 절 야

君子無理不動，無節不作。

군 자 무 리 불 동 무 절 불 작

예는 이치를 따지는 것이고 악은 절제하는 것이다.

군자는 이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절제가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

『禮記(예기)』「仲尼燕居(중니연거)」



사물 [四勿]

‘克己復禮 (극기복례)’가 바로 예라고 하면서 말한 **‘네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

非禮不視, 非禮不聽.

비례불시 비례불청

非禮不言, 非禮不動.

비례불언 비례불동

예가 아니면 보지도,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論語(논어)』 「顔淵(안연)」



정이(程頤)

중국 북송 중기의 유학자. 형 정호와 함께 주돈이에게 배웠고, 형과 아울러 '이정자'라 불리며 정주학의 창시자로 알려졌다.



「사물삼 (四勿箴)」

주자(朱子)가 편한 <논어집주> 안연(顔淵)편의 주석을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 예서(隸書)로 쓴 것



예의 중요성